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7대 장로 선출한다.

5월27일 공동의회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요구하신 주님 명령 따라 온 교회는 제7대 장로 선출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지난 3월27일 강남노회 시찰회에 우리 당회가 제출한 10명 장로 선임의 건은 허락되었고 오는 5월8일 정기노회의 허락을 받게되면 다음주(13일) 찬양예배 후 임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공천을 하게 된다.

당회가 결의한 후보자는 ①안수집사 ②협동장로 ③제2권사회 회원으로 하고 제직회는 이들 중 배수공천(20명)을 하되 득표순으로 정한다.

제직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임직 연도별로 하되 연령순을 따라 이름과 나이만 기록하여 제출케 된다. 제직회원은 후보자중 10명의 이름을 기록하여 투표하되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후보로 선출된 자는 당회의 인준을 거쳐 5월20일(주일) 순례자에 이름, 나이, 신력, 학력, 가족사항, 직업, 봉사부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당회 인준 기준은 ①주일성수 ②십일조 생활 및 헌신도 ③봉사생활 및 모범도를 살펴 당회가 인준한 이들을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5월27일(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20명 후보 중 10명만 기표하여 투표자 중 2/3이상 찬성을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10명을 피택자로 정한다. 공동의회 투표도 1회만 실시한다.

학원 복음화에 불을 붙인다.

-명지대 용인 캠퍼스 기숙사에 선교사 파송-

명지학원(이사장 유용구 장로, 선교실장 조종남 목사)은 용인 캠퍼스 기숙사 1동(500명수용)을 서울교회 전용 선교지로 지정하고 우리교회와 협약을 맺었다. 명지대 신입생은 1년간 기숙사로 입사케 되어 학원복음화의 최선의 기회로 알고 우리교회는 이태훈 전도사(고등부 지도)를 선교사로 파송기로 했다. 전도위원회(학원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각 전도회 및 대학부의 전도활동을 기대한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신학교가 설립된다.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사회주의 국가로 기독교를 공식 배척하고 있는 ○국에 공인된 현지 교회와 협약 하에 신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특히 우리 민족이 200만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국인을 위한 신학교가 개설됨으로 교포사회 지도자는 물론 그 나라 복음화에도 기여케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교회 당회는 현지 답사팀을 조직하여 현황파악을 하게 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였다. 유아부에서는 자모회를 중심으로 아기들을 위한 환경 꾸미기 및 풍선을 나누어주고 유치부에서는 예배 후 게임을 준비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부에서는 글짓기와 부모님께 편지쓰기,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편 교회에서는 교육 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에 자그마한 기념 선물을 마련하였다.

5월18일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개최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200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양육하는 교사들의 영적 각성과 헌신을 위한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5월 18일(금)오후7시에 개최한다. 모든 교사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양육하기 위한 지혜와 사랑을 간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전시회 열린다.

지난 5월2일 우리교회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념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오는 7월4일까지 개최될 이번 사진 전시회는 5 층부터 7 층까지 복도에 전시되며 지난 10년간의 교회의 대소사를 각종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있다. 성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

-5월19일(토) 오후2시 양재천 산책로 따라-

우리교회는 우리에게 예배할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탈북을 하였으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주변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 난민을 돕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탈북자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가 양재천 산책로에서 5월19일 개최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티공원을 출발하여 양재천을 돌아 다시 한티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며 서울교회 교인과 인근 주민 모두가 다 참석 가능하다. 경품추첨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준비된다.

2001 흥해 작전 올 해로 열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흥해를 건너자-

그 동안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이 처한 흥해를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건너왔던 흥해작전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올해도 오는 6월6일(수)부터 6월25일(주)까지 20일간 실시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준비위원회 조직과 주제, 행동강령, 진행사항을 확정하고 진군준비를 하게된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영적으로 각성하여 개인과 국가, 교회의 흥해가 무엇인지 주님께 내어놓도록 하여야겠다.

제28회 서울 강남노회 5월8일(화) 소망교회당에서

제28회 서울 강남노회가 소망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노회는 우리교회에서 제출한 장로7명의 선임 허락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우리교회는 이종운 목사, 이성득 목사, 정윤돈 목사, 고정선 목사, 이규정 목사, 김태기 장로, 민순구 장로, 윤찬오 장로, 이완형 장로, 임훈규 장로, 이번생 장로 등을 총대로 파송케 된다.

5월중 행사

| | |
|---------------|-----------------|
| 5/2 | 사진전시회 |
| 5/6 | 중등부 헌신 예배 |
| | 교육위원회 |
| 5/7/14/21/28 | 목회자 신학세미나 |
| 5/8/15/22/29 | 서울 주부대학 |
| 5/10 | 한국 로잔위원회 |
| 5/10/17/24/31 | 살롬 경로대학 |
| 5/13 | 특별 제직회 |
| | 전도위원회 |
| 5/18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
| 5/19 | 탈북난민 돕기 시민 걷기대회 |
| 5/20 | 교구위원회 |
| 5/26 | 입당감사 찬양제 |
| 5/27 | 공동의회 |

어린이 주일 특별 메시지

어린이 인권



이중운 목사

마가복음 (10:13-16)

오늘 우리사회에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살아보자는 주장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먼저, 우리가 흔히 무시해 버리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맞아주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아 누릴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에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 정문 앞에 '기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이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써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 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I. 예수님은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마치 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맞이하여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가정에

서 아이들이 반발하고 부모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부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동지가 비뚤어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II. 주님은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실 뿐 아니라 장점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른에게도 그러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심으로 어린이의 가치와 장점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어른의 보호 없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칠부지요 골치 덩어리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100%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좋은 점을 발견하여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신대로 아이들은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거짓이 없고 단순합니다. 진실하여 말이 달라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본받아야 할 어린이의 특성이며 천국시민의 모습입니다.

III.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와 부모, 어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따라 제사장, 선지

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자녀들의 죄를 내가 범한 죄로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청소년 문제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더러운 욕심으로 온갖 독소를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과잉보호와 편애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위에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왕처럼 사랑의 권위로 어린이를 다스리고 자녀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며 건강을 보호해주고 좋은 환경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과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땃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각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직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바로 감당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의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최지혜 전도사(유치부)

부모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중의 하나가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선물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와 이거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며 선물을 고른다. 어린이날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날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가장 좋은 선물인지, 혹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좋은 부모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온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고 싶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이다. 어린이는 사회로부터 교육기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요. 하지만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면 우리아이의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화 속 한 장면이다. 나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칠 만큼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과 함께 오래도록 있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뒤로 미루고 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자녀에게 가서 "만약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죽는다면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천국이요"라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면 선물을 사기 위해 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하였다. 주일이 되면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 선물도 나누어주고 재미난 놀이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우리 교사들은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선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기대한다. 하나님 나라를 자녀의 마음에 선물로 주는 부모가 늘어나길 기도해본다.



어린이 주일

우리들은요...

이명찬 (유년부)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다.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어른들은 우리들을 미래의 자라나는 '꿈나무'라 하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니,

푸른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잘 자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꺼예요.

정승세 (유년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 아빠가 있고 힘도 세고 친절하고 엄마는 우리를 아껴주니까 고맙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다.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아주 좋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지옥에 갔을 것이다.

특집-북한 바로 알기

북한의 어린이날

각종 방송매체를 이용 "공화국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어린이날」이 있을까?

북한에는 어린이 날이라는 공식 명칭은 없지만 지난 50년부터 공산권의 '국제민주여성동맹이사회'가 제정한 국제아동절(6월 1일)을 사실상 어린이 명절로 즐기고 있다. 국제아동절은 우리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벌어진다. 이날은 TV 프로그램도 어린이 위주로 진행한다. 아동 영화(만화)를 평소보다 많이 방영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는 유원지와 유희장, 동물원 등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각 유치원에서는 평소 연습한 노래, 춤, 기악, 화살 등 종합공연을 벌이거나 자전거경기, 밭출당기, 놀이감 따먹기, 통일기차놀이 등 오락 및 운동회를 즐긴다. 경기에서 이긴 팀에게는 장난감과 그림책을 상품으로 주며 어린이를 위해 준비한 특식을 나눠 먹는 등 남한의 어린이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는 외국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만경대유희장(놀이 공원)에서 각종 체육 경기와 예술 공연을 갖는다. 지방에서도 자전거 경기, 밭출 당기, 놀이감 따기, 통일기차놀이, 글자붙이기 등의 경기가 벌어진다.

많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온갖 먹을 내어 꾸며 입히고, 이 날에는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처럼 화장을 한다. 평양시에서는 한국의 대형 놀이공원과 맞먹는 유희장들이 전례 없이 복직되고, 온갖 놀이 기구들이 다 동원되며 적지 않은 부모들이 휴가나 조퇴를 받아 탁아소나 유치원에 찾아가 자녀들의 행사를 지켜보며 함께 즐기고 있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담임 부모나 교사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대접하며 여유가 있는 일부 주민들은 스카프, 스타킹 같은 소박한 선물을 건네기도 한다.

국제아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식일이다. 공휴일에는 작업량이 부과되지 않지만 휴식일에는 추후에 일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어른들은「국제아동절」전이나 후의 일요일에 출근하여 작업량을 보충해야만 한다.

그러나 92년 식량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런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몇몇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날의 개념이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자료출처 : 국민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새로왔어요 - 매주 공짜 점심만 먹을 수 없지요.

정호택 성도, 한촌일 집사(1교구)

*서울교회 오시는데 3년 걸리셨지요?

-예, 3년전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를 제대로 못 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예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등록을 마음먹고 있던 중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서둘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정호택 성도님은 원입 교인이시죠?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주일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자기 전에도 꼭 성경을 보게 되는데 아내가 보기에 신기한 가 봐요.

*최근 시아버지의 병환에 차도가 있는지요?

-등록한 주간에 중환자실로 이성득 목사

님, 지혜영 전도사님과 새가족부 여러 교사님들이 심방하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낯설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새가족부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교회에 잘 적응토록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다른 교회에 비해 특이하고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남편은 첫 등록인데도 우선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서먹한 마음도 이젠 사라지고 많은 교사들과 동지들이 있어 여덟가든 낯설지 않고 소속감이 듭니다.

*희운(15살, 아들)이와 희에(14살, 딸)는 어때요?

-부모인 저희들은 가족예배를 통해 아이

들의 예배 태도도 보게되고 해서 좋은데 아이들은 노코멘트예요.

*주일 교회식사는 맛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천 원짜리 식권을 사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네 식구가 매주 공짜 점심을 먹다보니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부터 만나홀 입구에 탈북난민을 돕자는 헌금함이 있어서 이젠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봄옷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셨다고요?

-"나눔의 집"소식을 듣고 일부러 옷 정리를 하고 모은 옷을 갖다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두 가족단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웃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



정호택 성도, 한촌일 집사 정희운, 희에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 (탐방 1-7 다락방)

새벽기도로 푹푹 몽쳤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와 지리하게 느껴지던 황사도 어느새 어딘가로 사라지고, 따사로운 햇살이 화사한 푸른 4월 하순에 기자가 1-7 다락방을 찾은 날, 다락방장인 건하미 집사댁에는 이미 9명의 성도들이 모여 찬양중이었다.

카메라 가방을 둘러맨 덩치 큰 이방인의 방문을 환한 미소로 맞아준 그들은 예배 후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자신들의 삶과 생활까지도 함께 나눈다. 다락방식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갈등과 고통은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행동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의논하고...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가 바로 이들의 다락방에서는 서로 나누어지며, 확인되어지고 있었다.

사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은 아닐까. 하지만 순박하다고 할 정도로 진솔하게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이들에게서는 전혀 가색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이들의 관계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넘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들은 매일 아침 새벽예배에서도 또 다시 마주친다. 다 함께 기도도 하루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다락방예배에 참석한 9명의 다락방 식구 중 6명이 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 식구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지역적으로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모임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친형제, 친자매들보다도 더 가까워 보인다. 새벽기도로 푹푹 몽치고 다락방 식구의 일을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모인 1-7 다락방은 그야말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안식처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보기만 해도 좋았던 만남이었다. 김시환 (편집부)



새벽기도회의 용사들 -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눔의 집 운영현황 및 교회 방문자 통계 나온다

지난 3월26일부터 시작한 나눔의 집이 금주로 6주 계가 된다. 그 동안 판매한 물건은 월요일 347점, 화요일 200점, 수요일 95점, 목요일 70점으로 현재까지 총 712점이 판매가 되었고 일요일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교회 방문자의 통계는 4월말까지 총 91명이 방문하였고 주요 방문 목적은 교회당 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 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학교 성수대학교 영동대학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

김치 세미나 특집 ①

차드 (Chad) 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차드는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이다. 아프리카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차드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호수(Lac Chad)로 국경을 이루고 있다. 사하라사막의 끝에 위치한 차드는 대부분이 베마른 반-사막지역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통스런 역사를 지닌 차드는 그 기반이 분쟁의 위기 위에 건설된 국가이다. 혹독한 기후, 지리적인 고립, 부족한 자원, 사회기초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나약한 경제는 정치적인 혼란의 영향을 받기 쉬운 형편이다. 1980년대에 차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차드는 보통 '개발되고 있는 곳'으로 표현되며 어느 정도 현대화와 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가카스로 '생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여행자는 항상 큰 도로와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좋을 정도로 치안이 어렵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와 여러 반란군이 고문과 처형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다.

정식국명은 차드 공화국, 면적은 1,284,000 sq km, 인구는 7백50만명, 수도는 은자메나(N'Djamena), 인종은 사라, 바키르미, 크레이쉬를 포함한 200여 소수민족 31%, 수단아랍인 26%, 테다 또는 투부족 7%, 은분족 6.5%이며 언어는 불어(공식어), 아랍어, 수단어이다. 종교는 회교 44%, 기독교 33%, 토착 부족종교 23%이다.

차드에는 3가지의 기후지역이 있다. 수도에서는 기온이 섭씨 40도(화씨102도)까지 오르며 북부의 사하라 산악지대에서는 섭씨 영하8도(화씨15도)로 떨어지기도 한다. 차드의 중부지역은 사막주변지역의 일부로 가끔 휩쓸고 지나가는 모래로 뒤덮여 있다. 강수량은 아주 적다. 황열병, 콜레라, 파상풍, 장티푸스, 간염, 기아디아(giardia), 이질, 세균감염, 광견병, 결핵, 주혈흡충병,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티프스 등 물, 곤충, 공기로 감염되는 질병이 풍토병의 형태로 만연한다.

이러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유테서 (편집부)

입당감사 찬양제 맹연습 중

오는 5월 26일(토) 연주되는 입당감사 찬양제의 연합 찬양대의 연습이 지난 금요일 시작 되었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7:30-9:30 까지 2시간 동안 501호에서 있다. 모든 찬양대원은 찬양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된 시간에 참여하기 바란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정

- 한국 로잔위원회(의장 이종운 목사)는 10일(목) 오전 7시 우리 교회당에서 새로운 전도 모델-인터넷 전도-라는 주제로 신학 심포지움을 갖는다. 전도에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
- 이회자 성도(2교구13다락방) 충남 서산 은행나무골 식당 개업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종호 집사 최무순 권사 (2교구) (은혜중에 결혼식을 마치고)
- ☑ 목회자 세미나 식사 제공 가정 : 신용식 집사 김신영집사 제1권사회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장회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N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